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박 영 레¹⁾ · 김 경 희²⁾ · 최 미 혜²⁾

1)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bstract =

A Study on Safety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Park, Young-Rye¹⁾ · Kim, Kyung-Hee²⁾ · Choi, Mi-Hye³⁾

1) Full-time Lecture,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afety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self-efficacy in child care teacher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394 teachers from child care centers in Seoul city.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a Safety Knowledge Test, Health Belief Scale and Self-efficacy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PSS 11.0 Win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The mean was 12.11 for safety knowledge, 38.31 for health belief, and 91.07 for self-efficac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safety education, in the level of health beliefs according to length of service as a teacher and in the degre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age, and length of service as a teac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afety knowledge and health belief, and between safety knowledge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programs to improve safety knowledge, health belief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in Korea.

Key words : Child care teacher, Safety, Knowledge, Health-belief, Self-efficacy

주요어 : 보육교사, 안전,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

교신저자 : 최미혜(E-mail: mihye@cau.ac.kr)

투고일: 2006년 8월 30일 심사완료일: 2006년 10월 9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Mi-Hy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89 Fax: +82-2-824-7961 E-mail: mihye@cau.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 40%, 1999년 47.9%, 2004년 49.1%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KNSO, 2005), 취업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의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등 조기교육, 영재교육을 이유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양육형태는 점차 사라져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Chung, 2002). 현재 국내 보육시설의 수는 약 25,300개소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서 약 89만 명 이상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며(MOGEF, 2005), 앞으로 보육아동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아동의 안전을 책임졌던 과거와는 달리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아동의 안전은 이제 부모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Lee와 Kim(2003)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일년 동안 안전사고를 경험한 영유아가 94%로 나타났고, 이 중 50.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에서 발생한 사고 24.3% 보다 훨씬 많았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사고발생을 조사한 Hong, Chi와 Kim(1998)의 연구에서는 약 70%가 한달에 1-2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ee(1995)의 연구에서는 한 해 동안 병원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보육기관이 8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영유아 사고의 원인은 유아와 교사의 부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시설 불량,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90% 이상이 예방가능하다(Glick, Kronenfeld, & Jackson, 1991).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영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운동기능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영유아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어느 시기보다 사고에 노출되기 쉬우므로(Nam, 2001) 영유아를 돌보는 어른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해

야 할 것이다.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간호학 전공자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앞으로 보육기관에 종사할 간호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간호학문에서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는 건강과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식, 어린이들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학급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유아교육과정의 내용에 관한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데(Saracho & Spodek, 1996) 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식을 들 수 있으며(Cho & Lee, 1999), 이러한 지식이 실천 행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건강신념, 자기 효능과 같은 내적,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고실태나 교육 요구도에 대한 것으로 사고예방 행위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Pender의 건강증진 모형(Pender & Pender, 1987)을 기초로 하여 Bang(2005)은 보육교사의 안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경험 외에도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안전수행 자신감, 안전에 대한 태도,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Russell과 Champion(1996)도 안전실천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자기효능, 건강신념, 사회적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보고하면서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기효능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유능함과 대응에 대한 자기 평가로서 지식과 행위간의 관계를 증대하여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효율성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느냐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수행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Kim, 1998).

따라서 아동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 인한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건강신념, 자기효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간호중재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정도를 파악한다.

-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안전지식

안전지식이란 상해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아동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같은 아동기의 상해에 관한 정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정보(Yoon, 2000)로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Bang(2005)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건강행위를 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념을 의미하며(Rosenstock, 1990), 본 연구에서는 Bang(2005)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자기효능

자기효능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Lee(2004)가 개발한 보육교사의 자기효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500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도구

• 안전지식

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Bang(2005)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선다형의 15개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이분형 5개 문항에 대해서는 “예”의 경우 1점, “아니오”의 경우 0점 처리하여 20점 만점에 대한 점수를 구하였다. 측정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

안전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Bang(2005)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Bang(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7이었다.

• 자기효능

보육교사의 자기효능 측정을 위해 Lee(200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 12문항, 개인적 자기효능 13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직접 설문지 작성에 의한 자가보고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신뢰도와 수거율을 높이고자 교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고, 배부당일에 작성하여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30-40분 정도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106부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4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

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 정도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Tukey HSD method를 이용하였다.
-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보육교사의 평균 연령은 34.3세로 주로 30대와 20대가 대부분이었으며(74.7%), 50대 이상은 3.8%로 나타났다. 보육경력 평균 5.9년으로 3-5년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이 31.7%이었고, 1-2년이 6.3%, 11년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51.2%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전문대졸이 23.9%, 대졸이상이 19.6%이었다. 보육교사 관련자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자격이 87.6%로 가장 많았고, 시설장 자격이 11.2%, 유치원교사와 간호사가 각각 0.8%, 0.5%를 차지하였으며, 65.7%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4)

변수	구분	N(%)
연령	20대	120(30.5)
	30대	174(44.2)
	40대	85(21.6)
	50대이상	15(3.8)
	교육경력	1-2년
	3-5년	220(55.8)
	6-10년	125(31.7)
	11년이상	24(6.1)
최종학력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206(51.2)
	전문대 졸	96(23.9)
	대졸 이상	79(19.6)
	기타	21(5.2)
	보유자격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3(0.8)
	간호사	2(0.5)
	시설장자격	44(11.2)
안전교육경험	있다	259(65.7)
	없다	135(34.3)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

안전에 대한 지식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18점이며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 중 12.11점(60. 55%)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신념의 범위는 최저 27에서 최고 45점이며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 중 38.31점(76.62%)으로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의 범위는 최저 71점에서 최고 122점이며 평균 점수는 125점 만점 중 91.07점(72.86%)으로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안전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정도 (N=394)

변수	Min	Max	M(SD)
안전지식	25	90	60.56(11.34)
안전신념	27	45	38.31(3.55)
자기 효능	71	122	91.07(8.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의 차이에서 안전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과의 차이에서 보육경력이 많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진 사람은 39.63점, 2년 이하의 보육경력을 가진 사람은 37.96점으로 차이가 있었다(p=.0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은 연령과 보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은 50대 이상의 집단이 9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집단은 89.16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p=.008), 보육경력에 따른 자기효능은 6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2년 이하의 보육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40).

안전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의 관계

안전에 대한 지식은 건강신념(r=.157, p=.002)과 자기효능(r=.212, p=.000)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또는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신념도 자기효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06,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또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지식, 안전신념, 자기효능 차이

(N=394)

변수	구분	안전지식		안전신념		자기효능	
		M(SE)	t/F(p) 사후검정	M(SE)	t/F(p) 사후검정	M(SE)	t/F(p) 사후검정
연령	20대a	11.99(.20)	.390	37.60(.33)	2.325	89.16(.83)	4.005
	30대	12.08(.17)	(.761)	38.65(.26)	(.074)	91.42(.59)	(.008**)
	40대	12.33(.26)		38.55(.37)		92.35(.83)	a<b
	50대이상b	12.20(.53)		38.60(1.25)		95.00(2.94)	
교육경력	1-2년a	12.16(.51)	.601	37.96(.65)	2.798	89.68(1.47)	2.800
	3-5년b	12.22(.14)	(.614)	37.93(.24)	(.040*)	90.17(.56)	(.040*)
	6-10년c	11.99(.22)		38.78(.33)	a,b<d	92.66(.80)	a<c,d
	11년이상d	11.67(.50)		39.63(.50)		92.42(1.19)	
최종학력	보육교사 양성과정	12.04(.17)	.122	38.24(.24)	.269	91.14(.61)	1.524
	전문대 졸	12.17(.23)	(.947)	38.19(.40)	(.848)	89.71(.78)	(.208)
	대졸 이상	12.19(.22)		38.63(.41)		91.99(1.20)	
	기타	12.20(.59)		38.25(.65)		93.10(1.49)	
보유자격	보육교사	12.11(.12)	1.119	38.37(.19)	.468	91.10(.46)	.498
	유치원교사	12.00(1.15)	(.341)	36.33(3.18)	(.705)	88.67(.33)	(.684)
	간호사	15.00(1.00)		38.50(.50)		84.50(5.50)	
	시설장자격	12.00(.35)		37.98(.60)		91.30(1.18)	
안전교육 경험	있다	12.36(.14)	2.981	38.45(.22)	1.092	91.49(.51)	1.393
	없다	11.64(.20)	(.003**)	38.04(.30)	(.276)	90.25(.74)	(.164)

* . p<.05, ** . p<.01

<Table 4>

<표 4> 안전지식, 안전신념, 자기효능과의 상관관계 (N=394)

	안전지식	안전신념	자기효능
안전지식	1.000		
안전신념	.157(.002**)	1.000	
자기효능	.212(.000**)	.606(.000**)	1.000

** . p<.05 ** p<.01

논 의

우리 생활 주변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하므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철저한 사전계획과 감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의 정도를 파악하고, 연령, 교육경력, 학력 및 안전교육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12.11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유사한 도구를 이용한 Yoon(2000)의 연구에서는 30점 만점에 20.6점이었으며 Bang(2005)의 연구에서는 15점 만점에 10.23점으로 보고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대상자의 보육교사의 연령

이 20대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지역 교사들이 안전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수준은 더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 학력과 교육경력에 따른 지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안전에 대한 지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Bang(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Yoon(2000)의 연구결과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48.1%이었고, Kang(2000)의 연구에서는 51.6%, Hong(2002)의 연구에서는 53%, 본 연구결과에서는 65.7%로 보육교사들의 안전교육경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이나 연수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교사연수와 보수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안전사고 사례에 근거한 예방교육과 응급상황처리 및 응급처치법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병원과 보건소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각 대학의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Chung(2002)은 보육교사의 82.8%가 안전교육만을 전담하여 교육할 제도나 기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고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육교사가 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절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더 자신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태도와 신념은 행동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행위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Becker, 1974). 즉 개인의 행동은 특별한 결과에 부여한 가치와 어떤 활동이 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건강신념모델에 비추어 볼 때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은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건강신념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대졸이상이 전문대졸 보다 점수가 높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보육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보육경력이 많을수록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보육에 대한 자신감과 사명감을 획득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보육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의 판단, 계획 및 실행은 교사가 지니고 있는 건강신념에 의해 결정되며,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태도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자기효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보육경력이 많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Cho와 Koo(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의 보육경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조절함으로써 그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Russell과 Champion(1996)의 연구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안전실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자기효능을 제시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간호중재는 자기효능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록 어머니와 보육교사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영유아를 돌보는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돌봄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이 지식과 행동 수행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변인이라고 지적하였던 것(Bandura, 1977)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이야말로 안전을 실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라고 하겠다.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식은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을 높게 지각하거나 또는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거나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 지식이나 관련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의 심리적 준비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보육교사가 올바른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이 요구되며 지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와 보육에 대한 관심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수많은 보육시설이 설립, 운영되었으나 보육시설의 양적팽창이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부모들은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여성의 경제참여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안전 실천 행위의 변화를 사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연구 결과 해석의 한계가 있으나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아동의 돌보는 사람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육교사의 안전실천과 관련하여 안전지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건강신념 및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05년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39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은 평균 12.11점이었으며, 건강신념은 평균 38.31점, 자기효능은 평균 91.0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신념과의 차이에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의 차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안전에 대한 지식은 건강신념($r=.157, p=.002$)과 자기효능($r=.212, p=.000$)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높거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신념도 자기효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606,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또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의 지식은 안전교육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과 자기효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보육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증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육교사의 사고예방 행위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건강신념과 자기효능 증진을 위한 간호증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건강신념과 자기효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 Bang, K. S. (2005). Attitude, knowledge, and practice of safety and related factors of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1), 43-53.
- Becker, M. H.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sick role behavior: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Thorofare, Newton : Charles B. Slac. Inc.
- Cho, B. K., & Lee, J. M. (1999). *New perspective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Seoul : Yangseowon.
- Cho, S. Y., & Koo, H. A. (2005). A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J Korean Assoc Child Studies, 26*(4), 55-70.
- Chung, M. S. (2002). *A comparative study on satisfaction of teacher and mother for the nursery's cont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Glick, D., Kronenfeld, J., & Jackson, K. (1991). Prediction of risk perception of childhood injury among parents of preschoolers. *Health Edu Q, 18*(30), 298-385.
- Hong, K. H. (2002). Kindergarten teachers' level of safety knowledge and related education experience.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0*(1), 151-163.
- Hong, H. K., Chi, S. A., & Kim, Y. O. (1998). Accidents and injuries of young children attending child care centers in the rural areas. *J Korea Assoc Child Care Educ, 13*, 315-340.
- Kang, K. S. (2000). *Development of teacher training program model for preparation of young children's acci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Busan.
- Kim, A. Y. (1998). Educational application of motivation theories and issues for future research : Focused on self-efficacy theory. *J Educ Psychol, 12*(1), 105-128.
- KNSO. (2005).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2004. Retrieved 05, 01, 2005, from the KNSO Web site: <http://www.nso.go.kr>
- Lee, E. S., & Kim, C. N. (2003). A study on the occurrences of accidents among children in nursery school and kindergartens. *J Korean Comm Health Nurs Acad Soc, 17*, 96-112.
- Lee, J.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perception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eacher efficacy in the work place child c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Y. (1995). Safety accidents and measures of child care center. *J Korea Assoc Child Care Educ, 2*, 39-57.
- MOGEF. (2005). Guidance of Child Care Service in 2004. Retrieved 02, 14, 2006, from the MOGEF Web site: <http://www.nso.go.kr> <http://www.mogef.go.kr>
- Nam, H. K. (2001). *Safety diagnosis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injuries at child care cen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 Pender, K. M., & Pender, A. R. (1987).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Stamford, Connecticut : Appleton & Lange.
- Rosenstock, I. M. (1990). *The health belief model: explaining health behavior through expectancie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 Theory, research & practice*. San Francisco : Jossey-Bass.
- Russell, K. M., & Champion, V. L. (1996). Health beliefs and social influence in home safety practice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mage J Nurs Sch, 28*(1), 59-64.

Saracho, O. N., & Spodek, B. (1996). Literacy activities in a play environment. *Int J Early Child Educ*, 1(1), 7-19.

Yoon, S. H. (2000). *Korean early childhood teachers' safety knowledge, perception, and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